<Starting Scene>

Player: 뭐지…여긴…어디지??? 분명히 집에 가고 있었는데..

Justice: 안녕

Player: !!!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Justice: 여긴 심. 너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충돌하고 공명하는 심상의 덩어리이자 의식의 세계

Player: …?

Justice: 쉽게 말해… 너의 마음 속이야. 꿈?

Player: 마음속..? 꿈이라고?? 이게 무슨… 너무 생생한데.. 이런 게 가능할 리가

Justice: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넌 여기에 있고,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지.

Player: 뭐? 나가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그리고 ‘우리’라니 너 같은..아니 너부터 넌 대체 뭐야!

Justice: 나? 잘 봐봐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

Player: …유스티티아…정의의 여신..

Justice: 맞아! 정확히는 유스티티아의 모습을 한 거지만

Player: 그제 무슨 소ㄹ

Justice: 나는 ‘정의’. 너의 심상의 삼중문(三重問) 중 제 일문. 정의에 대한 질문이야.

사람들은 말이지 현실에 치이느라 가끔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살곤 해. 혹은 외면하거나. 너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너의 생각의 저편에서 일어난 충돌과 공명에서 탄생한 생각의 덩어리이지 질문 그 자체. 너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할 거야.

Player: 뭐라고?? 그게 무슨..

Justice: 가자 첫번째 관문 정의의 방으로

<Room of Justice>

Justice: 정의의 방에 온걸 환영해

Player: 이게 방이라고..? 아니 그제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해야하는게 뭐지?

Justice: 간단해. 그냥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야.

Player: ? (뭐야 고작 그런 거라고? 너무 쉬운데?)

Justice: 쉽다니. 진지하게 임해야 할거야.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네가 나갈 유일한 방법이니까..

Player: 허투루 들을 생각 따윈 없었다고. 좋아 난 준비 됐어.

Justice: 좋아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UI 로 화면에 크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효과)**

정의라… 참 어려운 단어야.. 정의란 뭘까? 준법? 평등? 자유? 정의는 너무나 넓어. 수많은 철학자들 또한 정의를 규정해보고자 했어. 벤담, 칸트, 롤스… 벤담은 공리주의자야. 쾌락을 선, 고통을 악이라고 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라고 규정한 인물이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익숙한 다수결과도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고통을 무시할 수 있어. 유명한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폭탄을 숨겨놓은 테러범이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입을 열지 않는 그 테러범이 폭탄의 위치를 말하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어린 딸을 그의 눈앞에서 고문할지 말지 정해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딸을 고문하는게 맞아. 그렇지 않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테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정하지 못할 거야. 공리주의에 맹점은 거기에 있어. 다수의 행복, 이득을 위해 소수의 희생, 때로는 무고한 희생을 묵인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어떨까?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유를 곧 정의라고 정의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에도 문제는 존재해. 자유지상주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의 퇴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명한 예시로 대리모 사건이 있지. 어떠한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대리모의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본인이 키우고 싶어져 도망을 간 거지. 결국 소송과 항소 끝에 최종적으로 양육권은 불임부부에게, 그리고 대리모에게는 방문 자격이 주어졌어. 자유지상주의의 세계였다면 법원의 개입 없이 그들끼리 합의를 보고 알아서 자유롭게 해결해야되는 문제가 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출산의 가치와 산모의 인권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었을 거야.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짚으며 나타난 사람이 칸트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문과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지. 그는 의무론의 창시자이자 정의를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정의했어. 정언명령이란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은, 그 자체로 옳은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야. 그는 자신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말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동이라는 뜻이야. 즉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 가언명령이어서도 안되고 선의지에서 비롯된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만이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칸트주의에 따르면 거짓말 같은 행위는 정언명령에 위배되며 ‘하얀 거짓말’ 같은 것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 그렇다면 칸트주의에 문제점은 없을까? 아쉽게도 존재해. 칸트는 보편적 동의라는 어떤 가상의 계약으로서 공법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어. 하지만 그 계약이 어떤 형태를 띄고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았어. 칸트철학의 아쉬운 점은 그거야. 명확하게 규명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존 롤스가 등장해. 롤스는 자유주의학자이면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한 학자야. 그는 특히 자유주의에서는 배제되었던 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해. 그는 공정하지 않은 출발점의 문제를 짚어. 모든 사람은 재능의 영역과 정도가 다르지. 주변 환경과 부모의 재산 정도도 다 달라. 그것들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 그에 따라 복지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야. 롤스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정의해. 롤스는 중요한 두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제 1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제공하는 자유의 원칙이며 제 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제2원칙에서 그는 불평등은 오직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해. 그 차별이 복지이며 그것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원칙들은 어떻게 정한 것일까? 그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그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데, 무지의 베일 안에서 사람들은 기초적인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 환경, 출신, 인종, 그 어떤 것도. 그 상황에서 정해지는 사회적 합의가 바로 정의인 것이지. 그 상황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최악에 상황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것이 정의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논리에서 복지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자야. 그는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배제될 수 없다고 말해. 자유나 평등, 공리 등 어느 하나에만 치중된 논의는 부적절한 것이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선에 대해 토론하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정의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해.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이견들을 수용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 바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물음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바른 사람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이처럼 정의에 대한 논의는 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만큼 어렵고 항상 고민되는 문제지.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너 또한 정의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어. 그 복잡함에 금세 잊었지만 너의 마음 저 편에서 나는 조금씩 만들어졌고.

정의에 대한 질문은 어려워, 어렵기에 고민할 가치가 있지. 자, 이제 네게 물을 게 너의 정의는 무엇이야?

**플레이어 대답**

Justice: 후후후. 좋은 대답인걸..

좋아! 이제 제 2문으로 갈 시간이야. 잘가 플레이어.